제국주의 특별법명 첫 반납… '反戰 실천'

日 2차 대전 전사자 자손, 불교종단 내린 칭호 반대

박영빈 객원기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3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 불교계에선 반전(反戰)을 향한 작은 실천이 시작됐다. 지난 8월 17일 '마이니치신문'은 "불교종단이 전사자에게 내린 특별칭호를 반납하는 운동이 조용히 번지고 있다"고 특별 보도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시카와현에 거주하는 정토진종의 문도 니시야마 세이이치(87) 씨. 니시야마 씨의 부친인 마사오 씨는 육군병사로 1940년 중국전선에서 입은 총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니시야마 씨는 "그때 내 나이는 9살이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가 나서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 돌아가신 부친을 군신(軍神)처럼 받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문제는 부친에게 수여된 '원호법명(院號法名)'이었다. 정토신앙이 강한 일본에서는 고인에게 사후에 법명을 붙이는 전통이 있다. 죽어서 극락에 왕생한 이는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성불하기에 속명이 아닌 부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법명은 위패나 묘비 등에 사용되며 사자의 공식 이름으로 사찰에 등록된다.

대대로 정토진종을 믿어온 니시야마 가문에 대해 정토진종은 사망한 마사오 씨에게 국가나 종단에 막대한 공헌이 인정된 이에게만 특별히 수여하는 법명인 '원호법명'을 수여했다. 마사오 씨에게 수여된 원호법명은 '향덕원 석자성(香德院 釋慈聲)'. 앞의 원(院)이라는 칭호가 들어가기에 원호법명이라고 한다. 수여 이유는 '나라를 위해 순국했다'는 것. 정토진종 외에도 일본 내 다수의 불교종단이 제국주의 시대의 전사자들에

전사자에 칭호 내린 일본불교
제국주의 옹호에 반대 목소리
정토진종 문도 칭호 반납 요청
"아버지 죽음, 숭고 아닌 희생"

대해 특별칭호 등을 수여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전쟁 협력한 일본 종교계

2차 대전 당시 일본 종교계는 앞 다퉈 전쟁에 협력했다. 특히 불교계는 불교문화권이던 점령지에서 일본불교를 포교하며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일본화를 꾀했다. 특히 조동종의 경우 '전쟁에 나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부처님



전쟁에서 사망한 부친의 사진을 들고 원호법명 반납 의의를 설명하는 니시야마 씨.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의 가르침'이라고 설법하며 전사한 신도들에 대해 충렬, 보국 등의 원호가 들어간 법명을 수여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고서야 일본 불교계는 "불법의 이름을 빌려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공식적인 사죄성명을 발표, 원호법명의 수여를 중단했다.

니시야마 씨는 정토진종의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원호법명의 존재를 알았다고 전했다. 니시야마 씨는 "나이가 들고 나서 부친의 법명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해서, 타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곧이어 종단 측에 공식적으로 원호를 반납, 법명만을 재교부 해 달라는 신청을 넣었다. 당시 정토진종 총무원 측에서는 니시야마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호를 취소, 법명만을 인정했다.

종단의 결정에 대해 정토진종 교학연구소의 야마우치 사요코 연구원은 "원호법명을 수여하는 것으로 전사라는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부조리한 죽음을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전선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토진종에서 수여한 원호법명을 취소한 일은 이번이 최초다. 종단 측에서는 해당 사안을 주지로 임명되는 스님들의 연수교재에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 종단이 전쟁에 협력했던 부끄러운 단면을 교육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호를 반납한 니시야마 씨는 부친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도 합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뜻을 같이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합사 취소 소송을 제소했다. 니시야마 씨는 "부친의 죽음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죽음'이 아니라, '나라가 일으킨 잘못된 전쟁에 희생된 죽음'이다. 앞으로도 전쟁에 반대하는 서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中불교회장 쉐청 스님, 성추행 의혹 사임

비구니스님들, 고발문서 공개… 불사금 착복 혐의도

중국불교계 최고지위인 중국불교협회장을 맡은 쉐청(52) 스님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했다. 8월 16일, '중국중앙TV' 'AFP' '아사히 신문' 등 외신은 스님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사건의 배경을 상세 보도했다.

지난 8월 1일 셴자(賢佳)와 셴치(賢啓), 두 비구니 스님은 SNS를 통해 '중대한 사정을 밝히는 글'이라는 제목의 95페이지에 달하는 고발문서를 공개했다. 두 스님은 보고서의 진실성을 위해 속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우리는 쉐청 스님이 감추고 있는 사항들이 사회에 끼칠 막대한 악영향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대대적으로 폭로했다.

두 스님은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에서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쉐청 스님이 주지로 있는 룽취안(龍泉)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각각 쉐청 스님의 시자와 룽취안사의 도감 소임을 맡으면서 해당 사건들을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쉐청 스님은 최소 6명의 비구니 제자들에게 성행위를 요구했고, 여기에 4명이 응했다. 쉐청 스님은 자신과의 성행위는 '수행의 일환'이며 육신과 정신이 청정해진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지난 3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쉐청 스님. 사진출처=산케이신문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들이 함께 첨부됐으며, 그 내용엔 직접적으로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세뇌와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불사금으로 모연된 1200만 위안(한화 약 20억원)을 착복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해당 문건의 추가유포 및 SNS상 논의를 금지했으나, 사건의 반향이 커지면서 국가종교사무국을 통해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15일 중국불교협회는 긴급이사회를 소집, 쉐청 스님의 협회장 사임안을 승인했다. 현재 쉐청 스님은 출국이 금지된 채 푸저우(福州)의 모 암자에 은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빈 객원기자

"요리하며 명상" 불자 셰프 '자부심'

베트남 전쟁 중 라오스 탈출
母 도움으로 생활 불교 실천

"8년 전 식당을 개업했을 때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불교 실천의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혼잡한 주방에서 평정을 찾는 방법은 '명상'입니다."

라오스 출신의 미국인 셍 루앙라스(Seng Luangrath) 셰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불교'와 자신을 불교로 인도한 '엄마'라고 단언한다. 불교 잡지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8월 16일 '요리하며 명상하는' 불자 셰프 셍 루앙라스의 소식을 전했다.

루앙라스는 어린 시절 베트남 전쟁 중 라오스를 탈출했다. 그의 가족은 2년 동안 태국 난민촌에 거주한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현재 루앙라스는 워싱턴 DC에서 유일한 라오스 식당인 팁 카오(Thip Khao)를 운영하고 있다. 또 버지니아에서도 태국·라오스 식당을 운영하며, 북미에 고국의 요리를 홍보하는 '라오스 푸드 운동'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루앙라스는 자신이 태생부터 불자였다고 했다. 불교 국가인 라오스를 아주 어릴 적 떠났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심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루앙라스는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꽤 바빴고, 불교를 잃어버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다시 명상하고 불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며 "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심이 매우 깊다. 어렸을 적 그들을 따라 절에 자주 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 명상이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방에서 그는 식기와 불을 다루기 때문에 예민하지만 명상을 통해 묵언하며 '마음챙김'을 한다는 것.



생 루앙라스 셰프는 워싱턴DC에서 유일한 라오스 식당인 팁 카오(Thip Khao)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생활 속 불교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식당 운영은 매우 힘들며 바쁜 일입니다. 식당 문을 연 첫 해 나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니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매일 마음챙김 연습을 한다. 혼자서 산책하고, 가능한 많이 명상한다. 그는 요리할 때 대화를 멈춘다. 절에 가지 않아도 늘 불교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루앙라스는 "요즘 나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 명상한다. (함께 일하는)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린다"며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 마치 새로운 정신 상태와 같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루앙라스는 불교가 자신의 요리 경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불교가 없다면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과 산책은 나를 많이 도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게 직원들을 연민과 존경심으로 대해야 한다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성공의 일부입니다. 난 불교 실천을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한 엄마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박정현 객원기자

환자 돌보는 선센터, 운영 중단 '위기'

美 ZHP, 기부자 지속 감소에 자금난 심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젠 호스피스 프로젝트(Zen Hospice Project, 이하 ZHP)' 게스트하우스가 지난 6월 마지막 손님을 받았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자금난으로 인해 한 달 반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불교 잡지 '라이언스로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기부금으로 대부분 운영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위협받는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 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자금난을 겪고 있다.

1987년 대부분의 전통 호스피스들은 에이즈 감염 환자들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선센터 커뮤니티는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1990년 ZHP를 열었다. 빅토리아풍 건축물에 5개 침대를 두고 환자를 받은 것이 그 출발이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라구나 혼다(Laguna Honda) 병원의 자원봉사자 완화 치료 및 간병인 교육과 함께 ZHP가 실시하는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운영이 중단되기 전 6개 침대가 있었고, 1년에 최대 100명의 환자까지 돌봤다. 특히 '연민'과 '자비'를 운영 방침으로, 환자와 봉사자들의 수를 일대일로 배치한 것으로 유명했다.

2015년 당시 전무이사였던 BJ 밀러는 "삶의 끝에선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면서 "치유 받는 이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는다. 동정이 바로 그 힘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ZHP는 현재 단기적으로 재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기부자를 찾고 있다. 한편으론 장기요양 환자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설득 중이다. 라이언스로어는 "ZHP는 환자 1인을 돌보기 위해 하루 850달러에 비용이 들지만 현재 기부가 거의 없다. ZHP는 향후 2년간 연간 200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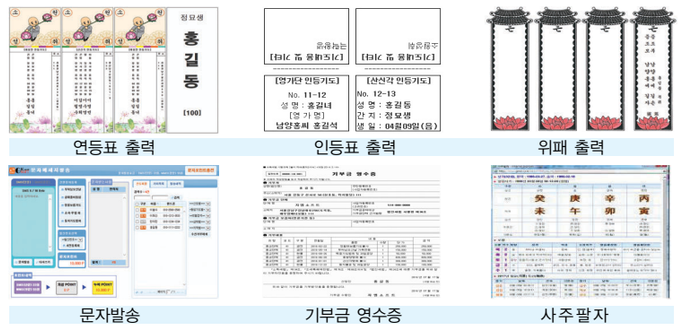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 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